

한국전력공사

**개성공단 전력공급 위한 개성지사 현판 제막 개소
분단이후 57년만에 남북간 전력수급 개시 의미 부여**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7월 28일 개성공단 현지에서 남북측 인사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의 전력공급을 담당할 한전 개성지사의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한준호 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남북간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말하고,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소식 행사에 이어 개성지사의 옥외현판 제막식을 갖고 개성지사의 개소를 축하하고 개성지사 사무실을 돌아 보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개성지사 안에 설치된 ‘시범단지 전력공급 모형관’을 점등하는 행사도 가졌다.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은 설계·시공부터 운영까지 모든 사업을 한전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단순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한 전기 공급을 넘어 분단 이후 57년 만에 최초로 남북간 전력수급이 시작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다.

한전은 작년 12월 북측과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전력공급을 위한 배전 및 수전설비 건설을 완료하고 시범단지에 대한 전력공급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한전은 현재 시범단지에 입주하여 있는 13개 기업 및 기관에 배전선로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2007년 1단계 100만평에 입주할 약 300개의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54kV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주)

**이웃사랑 나눔정신 『KOPEC 참사랑봉사단』 창단 출범
‘고객에 기술을-이웃에 나눔과 사랑’ 기업문화 승화**

한국전력기술(주)는 지난 8월 12일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과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OPEC 참사랑봉사단’ 창단식을 가졌다.

임성준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그 자체로 매우 의미가 큰 일”이라며 “참사랑봉사단이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KOPEC의 기업문화로 승화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에 기술을, 이웃에 나눔과 사랑’이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한 『KOPEC 참사랑봉사단』은 본부 및 사업단별로 정기적인 활동계획을 수립,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농어촌 결연사업 및 성금 후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인간·환경·기술의 융화’라는 기업이념을 가지고 보다 풍요로운 인간생활 환경을 위해 꾸준히 힘써온 한국전력기술은 앞으로 ‘참사랑봉사단’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기공 (주)

『Change-up 10%』 과제실행 경영혁신운동 본격화 7개 전사전략 과제선정 강력한 혁신 리더십 추진

한전기공(주)는 지난 7월 19일 ‘Change-Up 10%’ 과제실행의 가속화를 도모하기 위한 타운미팅을 본사 16층 교육장에서 실시했다.

‘Change-Up 10%’ 운동은 현재 수행 중인 업무 중 부가가치가 낮은 일을 발굴, 폐지 또한 개선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창출된 시간을 혁신활동에 사용한다는 한전기공만의 독창적인 경영혁신 운동이다.

이날 개최된 타운미팅은 ‘Change-Up 10%’ 운동을 통해 발굴된 116개 과제 중 7개를 전사전략과제로 선정하고 해당과제의 실행을 책임질 스폰서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선정된 전사전략과제는 회의 운영기준 수립·시행,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내부경영평가 간소화, MAPS 운영방법 개선 등이다.

한전기공은 이날 임원 및 처·실장들에게 7개 전사전략과제에 대한 혁신스폰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혁신리더십을 바탕으로 과제의 실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전기공은 지난 5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총 567건의 ‘Change-Up’ 과제를 발굴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해 116개의 과제로 그룹핑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전사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7개의 전사전략과제를 선정했다.

7개 전사전략과제는 금년 8월 ‘Facilitator’ 양성과정을 거쳐, 해당 스폰서와 ‘Facilitator’를 중심으로 GE의 워크아웃 기법을 활용해 현장에서 개선활동이 진행된다.

한국수력원자력 (주)

고리·영광본부 환경단체 ‘바실런’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바다사랑운동 공로 인정 해양환경 개선 적극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와 영광원자력본부는 지난 7월 22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거행된 ‘생명의 바다운동’ 캠페인 제6회 바다사랑 청소년 가요제 이벤트행사에서 민간 환경단체인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바실런’)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영광본부의 수산 및 해양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 그리고 바다사랑운동에 적극적인 기여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수여받은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영광본부에서는 2004년부터 원전주변 환경조사에 민간단체인 바실런을 참여시켜 환경관리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였고, 인근 해역의 노후화된 어장회복 및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어장정화사업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고리본부는 그동안 원전주변지역 해저 및 연안에 대한 해양정화활동을 지역주민과 함께 실시하여 왔으며, 인근지역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매년 은배수이용 양식어류 방류와 2000년 3월 바실런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임해공단지역 등 20개 지점에 대한 환경오염실태조사시 원전주변 해양환경이 깨끗하게 조성되어 있음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연안오염방지 캠페인에 원자력발전과 바다오염방지 홍보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환경단체에게 원전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금번 환경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되었다.

고리·영광본부는 금번 감사패 수상을 계기로 지속적인 해양환경개선 사업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한국중부발전(주)

**공기업 최초 생산성 경영체제(NPMS) 등급 인증 획득
혁신역량 대외인정 세계적인 종합에너지 기업 성장**

한국중부발전(주)는 지난 7월 8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사례 발표 및 공청회'에서 생산성경영체제(NPMS:National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등급인증을 공기업 최초로 획득했다.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는 산업발전법에 의거,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미국의 말콤발드리지 국가품질상(MBNQA: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 등 각국의 수상제도와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경영시스템 모델(예:ISO9000, CMMI 등), 세계적인 성과기업의 혁신 Best Practice(GE, 도요타, LG 등)의 장점을 통합하여 세계 최초로 경영시스템 역량 성숙도의 수준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한국중부발전은 기업비전인 '세계일류 종합에너지기업'을 구현하기 위해 28개 혁신과제의 단계적 추진은 물론 미래대응의 전략적 혁신 추진, 공기업 혁신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경영혁신 인프라 정비, 변화지향의 경영혁신 마인드 조성 및 혁신아이디어 발굴, 혁신성과 홍보활동 전개 등을 포함한 6대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생산성경영체제 등급인증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십과 전 직원들의 혁신역량이 대외적으로 높이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경영시스템과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물론 국내 최우수 발전회사를 넘어 세계적인 종합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남동발전(주)

**『예측진단시스템』 운영 고도로 선진화된 정비체제 구축
운전설비 문제점 조기발견을 통한 신속한 조치 가능**

한국남동발전(주)는 발전회사 최초로 『예측진단시스템』을 영흥화력에 운영함으로써 본격적인 상태중심정비(CBM:Condition Based Maintenance) 체제에 진입하였다. 영흥화력에 설치된 『예측진단시스템』은 설비상태에 따라 정비하는 상태 중심정비로 고도로 선진화된 정비체제를 의미한다.

화력발전소 정비체제는 크게 예방정비와 고장정비로 나누며, 예방정비는 주기중심정비(Time Based Maintenance)와 상태중심정비(CBM)로 구분된다. 주기중심정비는 일정기간 즉, 계획예방정비 또는 기기 운전시간을 기준으로 수행된다.

이에 반하여 상태중심정비는 설비상태에 기반을 둔 정비방법으로 지속적인 운전자료 분석과 주기적인 감시를 통하여 취득한 주요 설계/운전 변수의 추이를 분석,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상태가 발견될 경우 적절한 정비를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설비전반의 운전상태 분석을 위하여 운전정보취득시스템과 연계, 설비의 운전상태를 발전소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본사 및 예측진단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서 설비 문제점 조기 발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운전자료 분석에 의하여 운전방식의 변경, 정비방향의 설정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예측진단시스템』이 본 과도에 오르면 설비고장의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조치하는 효율적 정비로 경영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2008년까지 삼천포화력, 여수화력, 영동화력, 무주양수, 분당복합 등 전사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동서발전(주)

6시그마 1·2차 Wave 통해 327억 재무효과 기대 비용절감 수익등대 및 완료된 개선과제 사후 관리

한국동서발전(주)은 6시그마 경영혁신운동을 통한 개선과제 수행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6월 완료된 6시그마 2차 Wave를 분석한 결과 2차 Wave 추진기간('05. 1. 21~7. 7) 동안 블랙벨트(BB) 개선과제 15건과 그린벨트(GB) 개선과제 12건 등 총 39건의 개선과제에 대한 개선안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설비효율 향상, 연료비 절감 등 총 172억원 정도의 재무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추진한 6시그마 1차 Wave 추진기간('04. 8. 19~12. 28)동안의 재무효과 155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동서발전의 6시그마 경영혁신운동이 도입 단계를 거쳐 경영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서발전의 6시그마 활동은 비용절감과 수익성 개선 측면 뿐 아니라 업무프로세스 개선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6시그마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올해는 경영 전 분야에서 6시그마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완료된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시행 중이다.

동서발전은 매월 6일을 “6시그마의 날”로 선정, 개선 전문가는 이날 하루 개선과제 발표회, 챔피언과의 간담회 등 6시그마 활동에만 전념토록 하고 일반 직원도 직간접적으로 개선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 7월 15일 경영진 및 사업소장 분사 간부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6시그마 챔피언 워크숍」을 개최, 6시그마 3차 Wave 개선과제 31건을 선정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챔피언의 역할과 과제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전KDN(주)

IT 서비스기업 최초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고객서비스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실행 높이 평가

한전KDN(주)은 지난 7월 20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주관한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을 수여받았다.

이 인증 제도는 기업 또는 기관의 전반적인 서비스품질 수준을 진단하여 정부(산업자원부 장관)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우수업체로 공표하는 것이며, 한전KDN은 제품사후서비스 분야에서 IT서비스 회사로는 최초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서류심사, 현장평가, 암행평가 및 고객평가에서 한전KDN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해온 전력IT전문기업으로서 전력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과 고객성공을 위한 서비스 리더십과 즐겁고(Happy) 개방된(Open) 최고(Top)를 지향하는 새로운 기업문화가 회사와 개인의 비전을 연계하여 모든 직원의 비전 달성 의지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한전KDN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 신속한 서비스 제공체계, 교육훈련의 지속적인 강화, 효율적인 정보기술 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지식관리 분야에서 우수하였다.

또한 고객서비스와 업무프로세스를 수시로 개선하고 실행하는 절차가 잘 정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 되었다.

특히 한전KDN이 철저한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한마음봉사단을 결성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주목을 받았다.

한국서부발전(주)

**평택 화력 압입송풍기(FDF) 가변속장치 설치 운전
고도 제어기술 대형 유류보일러 국내 최초 사업 추진**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경영에 기여하기 위해 기력 2호기 압입송풍기(FDF)에 가변속장치(VFD:Variable Frequency Device)를 설치, 운전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ESCO사업 전문업체인 삼성물산과 한전기공이 공동수급 계약을 맺고 10개월간 제작, 설치한 후 보일러제어 기능 조정과 VFD의 성능시험을 거쳐 지난 6월말부터 부하 운전에 들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ESCO 지원자금을 활용해 추진된 이번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자금을 융자받아 에너지 절약 설비에 먼저 투자한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평택발전본부는 총공사비 15억원을 투자해 연간 약 850만kWh를 절감함에 따라 5억원 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게 돼 3년내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보일러 운전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는 정속운전 압입송풍기(FDF)에 가변속 장치인 VFD를 도입한 것으로 송풍기의 정속운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게 된다.

또한 가동, 정지(DSS)시 고압전동기를 부드럽게 가동·정지함으로써 전동기의 수명 연장을 도모한 전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발전설비와 같이 고도의 제어기술이 필요한 대형 유류보일러에서는 국내 최초로 추진돼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은 이번 2호기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바탕으로 타호기에 확대 적용할 경우 경영효율 극대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주)

**중국핵공업집단공사와 핵연료 기술교류 협정 추진 협의
경수로 및 중수로 핵연료 제조기술 상호 협력 증진**

한전원자력연료(주)는 최근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와 양사간 핵연료 관련 기술교류를 위한 협정추진을 협의하였다.

CNNC 부사장의 요청으로 한전원자력연료 양중국 사장과 CNNC 황귀권(黃國俊) 부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황귀권 부사장은 경수로 및 중수로 핵연료 제조기술 분야에서 양국간 기술교류를 제의하였으며, 향후 양사는 핵연료 부품수급, 제조기술 등 상호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논의를 거쳐 협정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유일의 핵연료 제조 및 설계 전문회사로 국내 20기의 원전에 필요한 경수로 및 중수로 핵연료 전량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핵공업집단공사(CNNC)는 친산(秦山)과 광둥(廣東)에 원전 5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전설계, 핵연료 생산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내 최대 원전기업이다.





한국남부발전(주)

고유가대비 자체 에너지절감 다각적 프로그램 수립 추진 발전설비 보강 및 운전방법 개선 등 발전효율 제고

한국남부발전(주)는 지난 7월 12일 경남 하동소재 하동화력발전소에서 하계 전력수급 대비 안정적 전력공급을 다짐하고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최근 고유가 지속과 관련 정부가 직접 나서 에너지수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날 다짐대회는 하동화력본부장을 비롯한 소·실장 및 협력사 주요간부가 참여하여 철저한 예방정비로 발전설비 신뢰도 확보와 안정적 설비운전을 다짐하였다.

특히 집중 호우에 대비한 취약설비 점검과 주 2회의 주기점검을 내실화하여 생산효율을 최대화하고 협력사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에너지위기에 공동 대처하자고 결의하였다.

한편, 신인천복합화력도 지난 7월 15일 『하계 피크부하 대비 고장예방 한마음 다짐대회』 행사를 개최하고 설비 고장예방을 통하여 여름철 계통부하에 기여하고, 발전소 무고장 운전 달성을 다짐하였다.

고장예방 결의문 낭독으로부터 시작한 신인천복합의 이날 행사에서 장신규 소장은 철저한 계획하에 고장예방 대책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취약설비 개선과 잠재적 위험요소 발굴을 통하여 설비 안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설비안정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 노력에 병행하여 한국남부발전은 올 여름 고유가 및 전력수급에 대비하여 자체 에너지절감 계획을 세우고 연간 100억원이상의 에너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에너

지 절감사업으로는 발전설비 보강과 운전방법 개선 등 총 49개의 프로젝트이며, 에너지 효율진단 등으로 발전효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2005 친환경 경영대상』 공기업부문 영예 대상 수상 지역난방 확대보급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기여 공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7월 8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최하고 열린경영연구원이 주관한 『2005 친환경 경영대상』에서 공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친환경 경영대상을 수상한 것은 그동안 지역난방의 확대보급을 통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난방공사는 96년 12월 공기업 최초로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따른 환경경영 목표와 환경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CHP(열병합발전) 확대에 주력하고,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K(주)

2009년 하반기부터 멕시코 및 미국 서부지역 LNG 수출 석유·가스 자원개발 집중 투자 자원확보 적극 추진

SK(주)는 페루 88광구(카미시아)와 56광구에서 개발하는 대규모 LNG의 판로 확보에 성공했다.

SK(주), 미국 헛트오일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페루 LNG컴퍼니(Peru LNG Company)와 스페인 석유회사인 랩솔-YPF가 최근 마드리드에서 LNG 매매계약(SPA, Sales & Purchase Agreement)을 정식 체결했다.

랩솔을 통해 2009년 하반기부터 연간 420만 톤의 LNG를 멕시코 및 미국 서부지역에 18년6개월 동안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다. 이로써 페루 LNG컴퍼니는 페루 광구에서 개발하는 천연가스 전량의 수요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한편, 이번 계약에 따라 지난 8월부터 페루 수도 리마 남부 해안에 위치한 팜파 멜초리타(Pampa Melchorita) 지역에 천연가스를 수송이 용이한 액체상태(LNG)로 바꾸는 대규모 LNG 플랜트 건설 준비작업이 시작되고, 2006년부터는 본격적인 건설작업이 시작돼 2009년 완공 예정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는 SK(주)와 美 헛트오일이 30대 7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계약을 통해 랩솔이 LNG 구매와 함께 20%의 지분을 참여(헛트 지분 20% 인수)하여, 지분을 구조가 헛트 50%, SK(주) 30%, 랩솔 20%로 변경됐다.

SK(주) 석유개발사업부 측은 “이번 계약을 통해 남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계약 체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SK(주) 최태원 회장은 “세계 10위권의 석유 메이저인 랩솔-YPF의 페루 LNG 구매 및 참여 확정으로 페루 LNG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SK(주)는 석유/가스 자원개발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 경제가 고유가 및 전세계적인 자원확보 경쟁을 헤쳐 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충북 오창 연구개발센터 시험가동 내년초 본격 운영 연구 검사시설 확충으로 고품질 석유제품 개발 추진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충북 오창에 마련한 연구개발센터를 지난 7월부터 연구시설과 검사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부처 연구원을 배치하여 8월부터 본격 운영을 앞둔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시험가동에 들어간 오창연구개발센터는 석유품질관리원이 연구개발 분야 확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본사 연구개발처와 시험기술택터 등이 이전해 석유류 제품의 연구와 성능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연구·검사시설을 확충해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자동차 연료유 품질 개선분야 등으로 연구 분야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석유품질관리원 김기호 이사장은 “그동안 장소와 연구인원이 부족해 만족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오창연구개발센터를 통해 석유류 제품에 대한 폭넓은 연구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고품질 석유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창연구개발센터는 시험가동에 들어간 뒤 금년말 경 관련 부처 이전을 추진하고 내년 초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GS칼텍스(주)

전국 주유소 및 충전소 대상 스타페스티벌 행사 개최 협력 파트너와의 동반자적 관계 상호 발전적 강화

GS칼텍스(주)는 협력파트너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GS칼텍스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전국 파트너와 동반자적 관계를 상호 발전적으로 강화하고 중소기업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국 주유소 및 충전소 대상 스타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였다.

2005년 올해로 13년째인 ‘GS칼텍스 스타페스티벌’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총 3,865개 주유소, 충전소, joyMart, autoOasis(주유소 3,071개, 충전소 274개, joyMart 270개, autoOasis 250개)를 대상으로, 그동안 적극적 영업활동 및 고객만족에서 탁월한 성적을 보인 곳을 선정해 무려 2%에 해당하는 전국 78개소에 해외연수 특전 및 푸짐한 격려금과 포상을 지급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GS칼텍스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 및 상생관계를 다짐하는 자리가 함께 마련되었다.

GS칼텍스는 이들 전국 Partner들과의 상생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GS 출범이후 전국 주유소와 충전소 CI(Corporate Identity), RI(Retail Identity) 교체”에 발생하는 시공비용 일체(총 540억 상당)를 전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GS칼텍스는 협력사 및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Program으로, 기업 최초로 1980년부터 지금까지 25년간 중소기업에 100% 현금지급 유지와 중소기업체의 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 역할을 제공하고, 대출이자를 위한 ‘역구매제도를 시행하는 등’ 협력업체와의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S-Oil(주)

가솔린용 합성엔진오일 ‘SSU GXO’ 환경마크 획득 품질 고급화 제품개발 환경친화형 기업이미지 강화

S-Oil(주)는 자체 생산 판매하고 있는 가솔린용 합성엔진오일 “SSU GXO”가 국내 최초로 최신 엔진오일규격인 API SM 규격 인증을 받는데 이어 환경마크협회로부터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했다.

S-Oil이 자체 생산하고 있는 고효도지수(VHVI) 윤활기유인 Ultra-S에 최신의 첨가제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한 가솔린 엔진오일 “SSU GXO”는 국내 최초로 최신 엔진오일 규격인 미국 석유협회(API)의 API SM 규격과 윤활유 국제표준화 인증위원회(ILSAC)의 GF-4 규격을 인증받은 100% 합성 엔진오일이다.

환경마크협회의 심사 결과 S-Oil의 “SSU GXO”는 연비개선, 오일 교환주기 연장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 친환경 석유제품으로 선정되었다.

환경마크제도란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저감시키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S-Oil은 1994년 국내 석유제품 중 최초로 청정등유에 대해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했으며, 금번 환경마크협회로부터 환경마크를 취득함으로써 정유업체 중 가솔린 엔진오일 분야에서 환경마크 인증 제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

품질고급화와 친환경제품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에 앞장서온 S-Oil은 이번 SSU GXO의 환경마크 인증 획득으로 환경친화형 기업이미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2005 서비스혁신 대상』 공기업부문 영예 대상 수상
전기안전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전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한국서비스경영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신문방송연구원 주관 및 후원으로 시행한 『2005 한국 서비스혁신대상』 공기업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6월 21일을 기점으로 “경영혁신 2기”를 선포하였다. 금년초부터 발표되고 있는 청렴도, 고객만족도, 혁신수준 진단결과에 이어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기안전공사는 모두 최상위권을 차지하였고, 대국민 전기안전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효율적 공기업으로 더욱 공고하게 자리매김하였다.

전기재해 예방기관, 대국민 서비스기관, 효율적 공기업이라는 공사의 3대 사명 완수를 위해 선포한 “경영혁신 2기”의 핵심 내용은 만족(Satisfaction) 경영, 시스템(System) 경영, 혁신(Innovation) 경영 등 S²I-Best(에스 스퀘어 아이 - 베스트) 경영이다.

만족경영은 단순한 외부고객 만족만이 아닌 공사를 둘러싼 다양한 구성원들의 만족을 위한 경영이다.

시스템 경영은 공사의 주요 업무인 고객관리, 재무관리, 평가관리 및 인사관리업무를 정보 시스템화하여 고객만족, 효율중심, 성과중심 경영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

고객관리 시스템인 CRM체계는 One-Stop서비스가 가능토록 하여 민원접수처리의 신속성을 기하였으며, BSC를 구축하여 조직 내에서 실적에 따른 보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 마시는 학교 500곳 최첨단 정수시설 지원
수질 모니터링 및 방문점검 등 지속적인 유지 관리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하수를 마시는 물이나 급식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전국 초·중등학교 500 곳에 최첨단 정수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

지난 2003년 물의 위생적인 관리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또한 2004년 충남지역 3개 학교(논산 광석, 당진 북창, 서천 기산초등학교)에 최신 막여과 기술을 적용한 정수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100개 학교를 1차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난 6월 설계를 마쳤으며, 연말 설치완료 목표로 정수장치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오는 2007년까지는 전국 500개 학교에 정수장치를 설치해 줄 계획이다.

또한 정수장치 설치 후, 수질 모니터링, 방문점검 등 시설운영이나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어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물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질이 불안정한 지하수 사용 학교에 최신 정수장치를 설치하고 운영관리까지 지원에 나선 것은 참으로 시기적절하고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보다 많은 사회에의 공헌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해야 할 공기업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하겠다.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

독립 사옥마련 현판식 및 이전기념 문화행사 개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문화 창달기관' 재도약 다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6월 21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사옥에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김용갑 위원장, 오명 과학기술부 부총리,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정운찬 서울대 총장, 한인수 금천구청장 등 각계각층 인사와 지역주민 등 150여명의 초청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옥이전 기념 문화행사를 가졌다.

「함께해요! 행복에너지 원자력」을 주제로 열린 이날 문화행사는 1992년 재단 창립 이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국민 이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금천구 독산동에 처음으로 독립사옥을 마련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문화 창달기관으로서 제2의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열렸다.

박금옥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국민에게 좀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양질의 교육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원자력이 더욱 세상을 평화롭게 움직이는 푸른 힘이 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원자력문화를 이루기 위해 힘차게 그리고 올곧게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 원자력연구소

에너지부 산하 알곤국립연구소와 원자력기술 협력 추진 4세대(Gen-IV) 원자력시스템 분야 활성화 기반 마련

한국원자력연구소는 4세대 원자력 시스템 등 분야를 공동 연구하기 위해 美에너지부(DOE) 산하 알곤국립연구소(ANL, 소장 Robert Rosner)와 공조체계를 완성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지난 8월 8일 알곤연구소와 각국 연구소에서 상호협력서를 교환함으로써 기술협력 약정(MOU)을 체결하고, 4세대 원자력시스템, 경수로 원자로, 가스원자로, 대규모 수소생산, 연구용 원자로, 원자력 과학기술 등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공동 진행기로 했다.

이번 MOU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5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두 기관이 상호 기술협력약정을 추진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양국 정부가 지난 7월 25일부터 3일간 미국에서 개최된 제26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관련 협의를 논의함에 따라 진행됐다.

특히, 이번 협력협정 체결은 미국 부시행정부가 원자력 이용 확대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시점에서 성사돼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알곤국립연구소는 1960년대 중반부터 원자력 인력양성훈련, 전문가단 지원 등에 관한 기술협력을 맺은 바 있는 자매 연구기관이다.

지난 1970년대 후반에는 상호 자매결연(Sister Lab Relationship)을 맺은 바 있으며,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통한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알곤국립연구소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수준 높은 연구시설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2013년까지 매년 500억원 투자 석유탐사 적극 추진
동해-1 광구 2500억 입방피트 12억달러 수입대체 효과**

한국석유공사는 2013년까지 매년 500억원을 투자, 2~3개의 유력지역에 탐사공을 뚫을 계획이다.

울산 앞바다에서 남동쪽으로 58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인 동해-1 가스전은 98년 6-1 광구의 고래 V구조 탐사시추에 성공하면서 관심 대상으로 부상했다. 이듬해인 99년에 사업타당성 평가에서 가스공급 가능성과 경제성이 확인된후 2개의 평가시추를 통해 경제성있는 가채매장량을 확인했다.

동해-1 광구에서 확인한 매장량은 모두 2,500억 입방피트, 일일생산량만 5000만 입방피트(약 1000톤)이며 15년 동안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천연가스를 국내에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12억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플랜트, 조선 등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도 기대하고 있다.

동해-1 가스전에서 5킬로미터 떨어진 고래8 구조에서 새 가스전이 발견돼 약 400억 입방피트의 가스를 확보하게 됐다. 올 1월에 굴착을 시작해 2월 14일에 석유와 가스징후를 발견하고 같은 달 27일에 생산성 시험을 해본 결과 매일 3800만 입방피트의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5월부터 개발에 들어가 본격적인 생산은 2007년 12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현재까지 국내 대륙붕에서 24만킬로미터의 물리탐사와 39번의 탐사시추를 통해 2900만 입방피트의 가스를 발견했으며, 이

는 17억4000만달러의 수입대체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석유부존 가능성이 높은 6-1 광구에 대한 집중적인 탐사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포스코파워(주)

**‘한국종합에너지’ 『포스코파워(주)』로 회사명 변경
초일류 에너지 전문회사로서의 강력한 이미지 구축**

국내 최대 민자 발전회사인 한국종합에너지는 지난 9월 9일 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 이름을 ‘포스코파워(주)’ (POSCO Power Corp.)로 바꾸기로 결의하였다.

지난 7월 11일 POSCO와 한국파워투자(KPIC)가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지 두 달여 만에 전격적으로 사명변경을 확정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포스코파워’는 세계적 인지도를 보유한 ‘포스코’의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사용하게 되어 초일류 에너지전문회사로서의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포스코파워 관계자는 “이번 사명변경은 포스코의 에너지사업으로의 진출 의지와 포스코파워의 발전사업에서의 진취적 기상을 담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파워는 지난 1969년 인천 울도에 발전설비를 건설한 이래로 현재 1,800MW의 발전설비를 갖춘 국내 최대의 민자발전회사로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복합화력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 12% 및 전국 3%의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파워는 2004년 기준 9,100억원의 자산, 매출액 3,850억원의 경영실적을 올렸으며 부채비율 103%의 건설한 회사이다.



현대오일뱅크(주)

한국 Make-A-Wish재단과 난치병 어린이들기 캠페인 전개 전 임직원 적극적인 참여 전국 8개 봉사단 구성 활동

현대오일뱅크(주)는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Make-A-Wish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소원성취를 꿈꾸는 난치병 어린이 모집에 나섰다.

소아암, 백혈병 등의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소원성취를 위한 이번 캠페인은 난치병 어린이 소원성취기관인 한국 Make-A-Wish 재단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현대오일뱅크는 이 캠페인을 위해 회사 홈페이지(www.oilbank.co.kr)을 통해 난치병 어린이들을 추천받고 있다. 또한 전국의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를 통해 추천받은 난치병 어린이들은 한국 Make-A-Wish 재단과 연계하여 소원을 들어주게 된다.

이에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7월 22일 Make-A-Wish 캠페인 기금으로 1355만원을 한국 Make-A-Wish 재단에 전달했다. 이 기금은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밝고 즐거운 회사 분위기 만들기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벅타이 바자회 때 임직원 참여로 모아진 금액과 회사가 동일 액수를 매칭그랜트하여 모아진 금액이다.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소원성취 어린이(Wish-Kid)로 선정된 어린이의 수호천사로 나선다. 전국에 걸쳐 8개 Make-A-Wish 봉사단을 구성하여 소원성취 어린이가 선정 후부터 소원이 실현되는 과정까지 어린이가 행복하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몸을 던져 봉사한다.

현대오일뱅크 신용삼 경영혁신부장은 “이번 현대오일뱅크 Make-A-Wish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사랑의 기적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올 상반기 1205만톤 천연가스 판매 당기순익 2624억 달성 금년도 LNG수요 작년대비 5.5%증가 2249만톤 전망

한국가스공사는 올 상반기에 26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6월 2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상반기 실적발표회를 갖고 상반기까지 매출액 5조2826억원, 영업이익 4104억원, 경상이익 3556억원을 각각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가스공사는 상반기동안 총 1205만1286톤의 천연가스를 판매했다.

도시가스용이 전년대비 10% 증가한 789만톤이 판매됐으며, 이는 동절기 저온현상과 전년대비 신규수용가수 7%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발전용의 경우 지난해 대비 14.5%나 감소했으나 이는 원전의 정상 가동과 올진 6호기의 가동, 중유대비 LNG 발전단가 상승이 원인이 돼 지난해 많은 물량이 판매됐기 때문이다.

매출액은 발전용 판매물량의 감소에도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은 도시가스용 판매량 증가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5조2827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1203만톤 판매에 25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이보다 약 2000톤 가량이 더 판매돼 지난해 동기대비 약 2.7%가 증가한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이는 상반기 세율이 29.7%에서 27.5%로 내려 법인세 감소분 87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반면 이는 공급비용의 하락과 외환손실 등으로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해 대비 7.7% 감소했으며 경상이익도 0.5% 가량 감소했다. 올 천연가스 판매량은 지난해 2132만톤 대비 5.5% 증가한 2249만톤으로 전망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고품질 서비스제공을 통한 고객만족경영 지속 전개
고객 사후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 모니터링 시행**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객에게 제공한 검사 및 전화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인 서비스품질조사(SQI)를 실시하여, 고객접점의 우수/부진 서비스 파악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고객의 소리(VOC)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보다 개선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후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객관성·공정성 및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04년부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 상반기 조사결과 사후만족도의 경우 전반적 만족도가 '04년 상반기 79.8점에서 '05년 상반기 85.6점으로 나타나 '04년 조사시점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객과의 대면/비대면 접촉을 통한 유대감화, 고객의 소리(VOC) 수집 및 공유체계 마련, 친절도우미 등 방문고객 불편해소 및 ONE+ONE 운동 등 이미 시행된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의 지속적인 전개와 교육의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 공사 전체 전화친절 모니터링지수도 '04년 상반기 74.6점에서 '05년 상반기 82.1점으로 전년대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 또한 지속적인 고객만족 서비스교육 및 고객응대 매뉴얼 전파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품질조사(SQI) 결과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나오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조사결과 도출된 부진항목 및 개선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피드백을 통하여 앞으로 고객만족경영이 완전히 정착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평택기지사업소 무재해 10배 목표달성 기념식 개최
회사 창립이래 최초 실현 쾌거 지속적 안전결의 다짐**

한국가스기술공사 평택기지사업소는 최근 무재해 10배를 달성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평택기지사업소는 1993년 7월 20일 무재해 운동을 시작한 이래 지난 5월 17일 무재해 10배인 4320일을 달성하고 7월 19일 평택생산기지내 LNG 홍보관 강당에서 무재해 10배 달성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가스기술공사 설립 이래 최초로 무재해 10배를 달성한 뜻 깊은 자리로 한국가스기술공사 신종현 사장을 비롯해 가스공사 임규혁 평택생산기지장, 산업안전공단 수원지도원장, 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장, 석유공사 평택지사장 등 임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패 수여식과 유공자 표창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신종현 사장은 치사를 통해 “올해 5월 17일까지 11년 9개월 27일 동안 재해없는 사업장을 유지하여 처음으로 무재해 10배 목표를 달성한 것은 회사의 자랑”이라며 “무재해 10배에 만족치 않고 15배, 20배의 무재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도시가스(주)

환경부로부터 천연가스버스 보급 최우수 업체 선정 CNG충전소 건립 적극 추진 대기오염 획기적 개선

대구도시가스(주)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전국 최 우수업체로 선정돼 지난 7월 25일 환경부로부터 상을 받았다.

환경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6개월간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구도시가스가 CNG충전소 부분에서 최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이 기간동안 대구도시가스는 전국 최다 규모인 CNG 충전소 3개소(압축기 총 6기)를 신규 건축, 저공해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유도해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구도시가스는 지난해에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대구도시가스는 지난 2002년 12월 전국 2번째 CNG 충전소인 성서 CNG 충전소를 개소한 이래 지금까지 7개소의 CNG 충전소(성서, 대곡, 매곡, 동호, 검단, 범물, 동명)를 대구시내 주요 시내버스 주차장 및 회차지 인근에 건립, 시내버스가 어느 지역을 경유 하더라도 손쉽게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그 결과 버스업체들이 공해가 심한 경우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대한석탄공사

기술연구소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지정 고체광물연료 국제규격에 대한 의견 주도적 피력 반영

대한석탄공사 기술연구소는 지난 7월 26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 TC27(고체광물연료분야:석탄 및 코크스) 및 SC1(석탄의 분류 및 용어정의), SC3(코크스), SC4(시료샘플링), SC5(분석방법)에 대한 국내간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기술연구소가 고체광물 연료 분야에서 간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대한석탄공사의 기술력이 반영되었고 석탄산업을 선도하는 대외적 신임도가 증진됨을 뜻한다.

간사기관의 역할은 41개 전 세계 회원국에서 고체광물연료에 대한 분석 규격의 제정 및 개정안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제시하면 ISO는 각 회원국의 간사기관에 안건을 보내고 간사기관은 관련 위원들을 소집, 제기된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ISO 본부에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한석탄공사가 간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체광물 연료에 대한 국제규격을 제정 및 개정시 자국의 의견과 우리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피력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과 한국산업규격 개정 등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WTO 가맹국들은 원칙적으로 ISO 국제규격에 일치시켜야 하므로 국제규격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의 전 분야에서 ISO 국제규격의 추세에 따라 가기 위해 전문기관을 간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우리의 의견을 ISO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

**중국 석회석 광산개발 및 가공사업 국내 최초 진출
해외 자원개발 선도 안정적인 고품질 원료광물 확보**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중국 석회석 광산 개발과 2개 가공사업에 동시 진출한다.

광업진흥공사는 (주)원진과 공동으로 중국 안휘성에 소재한 석회석 광산 개발 사업에 진출, 총 277억 1천만원(광진공 133억5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3개 사업은 석회석 광산 개발과 포스코의 중국현지법인(ZPSS)에 납품할 생석회 제조, 단광 제련 등이다.

(주)원진(지분 51%)과 중국 래용광업유한공사(지분 49%)가 설립한 합자기업에 광진공은 (주)원진 측에 25%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또 2개 가공사업은 (주)원진이 100% 투자기업으로 진출하고 이 중 49%를 광진공이 투자하기로 했다.

본 사업은 내년 7월부터 첫 생산에 들어가 첫 해는 가동률 약 10%를 예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본격 가동되어 연간 석회석 264만톤, 생석회 83만톤, 지금(Ingot) 3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광진공이 밝힌 예상 매출액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260억원 규모이다.

특히 이 사업은 포스코의 중국 현지법인인 ZPSS와 독점공급계약을 맺어 판매처를 이미 확보했으며 주변에 석회석 관련 산업이 발달해 풍부한 수요가 존재하는 등 위험부담이 적다. 또한 내년부터 바로 생산에 착수, 투자회수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광업진흥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자원개발 진출에 선도역할을 맡았으며, (주)원진은 사업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수익과 광진공의 풍부한 해외광산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포스코

**2후판공장 신예화설비 준공 고급강 생산체제 구축
제품 고부가가치화 향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주)포스코는 지난 7월 27일 2후판공장 신예화공사 준공식을 갖고 고급강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창오 사장을 비롯한 관련 포스코 임직원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42개 고객사, 미쓰비시중공업 지멘스 등 10여개 공급사 대표들이 참석해 후판공장의 신예화를 축하했다.

이번 신예화 사업을 통해 포스코는 2후판공장의 후판 생산능력을 기존보다 40만톤 향상시키고 압연기 압하능력도 2000톤 증대하는 한편, 온라인 가속 냉각설비의 냉각능력 향상을 통해 고강도 고급강 생산능력을 확대했다.

포스코는 이번 신예화를 계기로 조선용 TMCP 강재와 고급 API 강재의 종합주분적중률과 압연 생산성 등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뿐 아니라 제품의 품질편차가 6시그마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포스코는 후판 섹터를 중심으로 고급강 중심 생산체제를 조기에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주)

새로운 PI(Process Innovation/업무혁신) 시스템 본격 가동 재고 물류비용 대폭 감소 수익중심 경영체제 강화

두산중공업(주)는 최근 영업에서부터 사업관리, 설계, 생산, 구매, 재무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PI(Process Innovation 업무혁신) 시스템을 재구축 가동했다.

이번 PI 시스템 구축을 위해 두산중공업은 지난 2002년부터 전담 인원 및 컨설턴트 200여명과 총 300억원을 투입했다.

두산중공업은 PI 시스템 구축에 앞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및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거쳐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화 하는 문서관리시스템을 완성했다. 이에 따라 대고객, 사업관리, 생산, 구매를 지원하는 문서는 모두 전자문서화 되어 신속한 지원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이번 PI 시스템 구축으로 영업, 사업, 설계, 생산, 구매 등 주요 업무 프로세스를 75% 이상 단축시키는 한편, 최종 승인까지의 결재시간도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줄였다. 아울러 재고 물류비용 등도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수익중심의 경영체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위험요소를 사전에 관리 할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서 작성기간도 대폭 단축함으로써 대고객 서비스를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김대중 사장은 “두산중공업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경영체질개선을 통해 지난해부터 창사 이래 최대 수주실적을 올리는 등 턱어라운드 하고 있다”며, “이번 새로운 PI 시스템 구축은 그동안의 경영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비전인 ‘No.1 글로벌 컴퍼니’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주)

중형엔진 생산 14년7개월만에 누계 700만마력 달성 세계적인 엔진 메이커 위상 과시 재도약 발판 마련

현대중공업(주)는 최근 중형엔진 생산 누계 700만 마력을 달성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90년 12월 중형엔진 1호기 「H720」을 생산한 지 14년 7개월 만인 지난 7월 이같은 기록을 달성해 세계적인 엔진 메이커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27일 중국 CSBC조선소에서 수주한 3천500TEU급 컨테이너선에 장착될 1만4천680마력급 선박용 발전기 엔진 4대에 대한 시운전을 마침으로써, 지금까지 총 3천800대·7백11만 마력의 중형엔진 생산을 기록하게 됐다.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대형엔진 5천만 마력 생산을 달성해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현대중공업은 선박 및 육상의 발전기에 주로 사용되는 4행정식 기관인 중형엔진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기록의 의미가 있다.

특히 중형엔진에는 현대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국산 제품인 ‘힘센엔진(HIMSEN)’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기록은 우리나라 엔진산업의 약진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주)효성

**750kV급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중국에서 상업운전
연간 1조원 규모 中 중전시장 입지 강화 전망 기대**

(주)효성은 올해 초 중국에 처음으로 수출한 750kV급 가스절연개폐장치(GIS) 2대가 금년 9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효성은 중국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800kV 승압 시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사의 GIS 2기가 8월말까지 시운전을 완료한 후 9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청해성 관정(官亭)과 감속성 란주(蘭州)에 효성이 설치한 750kV급 가스절연개폐장치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전동송(西電東送) 프로젝트'의 주요 기기이다.

서전동송 사업은 동부지역 개발을 위해 서부지역의 전력을 동부지역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수자원 중 90%가 중국의 서남부, 중남부 및 서북지역에 집중 됐는데 비해 전력사용은 동부 해안지구에 쏠린 불균형을 타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중국의 800kV GIS 시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결될 경우 서전동송 사업과 서부 대개발에 큰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효성은 연간 1조원 규모의 각종 고압 GIS와 가스차단기(GCB) 등 중국 중전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효성은 지난 99년 국내 최초로 800kV 가스절연개폐장치(GIS, 60Hz)를 개발, 한전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중국시장의 50Hz용에 맞게 재개발,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세계적인 전력시험 인증기관인 네덜란드 전력시험소(KEMA)로부터 수출품에 대한 인증을 획득, 지난 2월 제품을 출하했다.

현대엔지니어링(주)

**미래 비전기업 성장 위한 회사 발전전략 수립 추진
본부 직원 중장기 계획 Task Force팀 구성 운영**

현대엔지니어링(주)는 지난 6월 각 본부 직원 12명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Task Force 팀을 구성하고 회사가 미래 비전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화 사장은 TF팀과 가진 면담에서 Bottom-Up 방식의 참여경영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경영자의 지시에 의한 전략이 아닌 아래에서부터 회사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통해 나온 임직원 모두가 공유하고 공감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금이 위기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천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TF팀원들에게 모든 것을 배우며 받아들이려는 빈 마음으로 자기한계에 도전하는 향상심을 가지고 미래 비전수립 작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TF팀은 11월말까지 6개월간 현대엔지니어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미래비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

고유가대응 독일 에너지공사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ESCO제도 및 건물에너지절약 등 벤치마킹 기회 제공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7월 26일 최근의 고유가에 대응하여 독일에너지공사의 건물에너지 절약 분야 전문가인 Ms. Felicitas Kraus를 초청하여 에너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ESCO 및 건물에너지 절약시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독일에너지공사의 ESCO제도, 건물에너지 절약분야의 법령 및 시범프로젝트 현황 소개와 실시 사례 경험을 공유하는 등 양국의 제도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독일에너지공사의 건물에너지효율부장인 Ms. Felicitas Kraus가 건물에너지절약 인증제도(Energiepass), ESCO프로그램(Contracting Program) 등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및 제도 등을 소개하고, 참석한 ESCO, 연구기관, 그리고 공단 관계자와 국내 적용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에너지관리공단과 dena는 이번에 도출된 에너지절약 공동협력 대상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 기관 간의 협력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고,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협약 분야의 선진국인 독일의 프로그램 및 제도 등의 벤치마킹이 국내 에너지절약사업 추진과 고유가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주요 선진국의 우수한 에너지절약 기관과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장학회 설립 내년부터 본격 운영 우수 전기관련 학생 장학금 및 학술연구비 등 지급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지난 7월 7일 서울 논현동 본사 13층에서 전기공사공제조합 장학회 현판식을 갖고 2006년부터 전기관련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장학회는 공제조합에서 10억원을 출연했으며 출연금 규모를 200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열린 23회 정기총회에서 설립을 의결했으며 장학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때 까지 공제조합에서 사무실 등을 지원한다.

장학회의 초대 이사장은 전강환 공제조합 이사가 맡았으며 이사 11명과 감사 2명을 선임했다. 또한 올 하반기에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침을 만들고 내년부터 3억원 범위 내에서 전기관련 학과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강환 초대 이사장은 “장학회는 최근 이공계 기피 현상에 따른 전기공학과 지원학생이 급격히 감소하고 3D 업종의 기피로 전기업계에 젊고 유능한 인력의 수급이 심각하다”며 “젊은 인력양성을 통해 100만 전기인과 국가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전 이사장은 또 “남병주 이사장을 비롯해 전 조합원이 믿고 장학회 창립 임원에 맡겨주신데 감사하다”며 “조합원의 뜻에 보답할 수 있도록 장학회 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학회는 앞으로 우수 전기관련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학술연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공제조합 조합원과 임직원 자녀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 출범 대체자원 개발 본격화
올해 150억지원 물리탐사선 가동 내년 시추위치 확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7월 19일 원내 강당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사업단’ 출범식을 가졌다.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단은 올해부터 3년 동안 우리나라 인근을 중심으로 시추와 정밀 탐사를 통해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매장 유망지역의 부존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심해 또는 극지방의 저온, 고압 조건에서 천연가스가 물분자와 결합해 고체 상태로 해저지층에 존재한다.

우리나라에는 독도를 중심으로 동해에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천연가스 사용량은 2000만톤 규모, 우리나라에는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6억톤 가량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업단은 첫 번째로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분포 및 매장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2차원 정밀탐사, 2006년에 3차원 물리탐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시추위치를 정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차세대 기술개발 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며 올해에는 150억원이 지원되고 앞으로 10년동안 해마다 비슷한 규모의 예산지원이 따른 전망이다.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박근필 박사는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기술은 아직 선진국조차도 채굴기술이 없는 미래 기술”이라면서 “만약 우리가 기술개발을 선도할 경우 전 세계 바닷속에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채굴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단일 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 실증시스템 본격 가동
산업공정열 분야 및 건물 냉난방 열원 안정적 공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난 7월 26일 태양열 활용기술의 실증시스템 가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번에 개발된 단일 진공관형 태양열집열기 실증시스템은 급탕뿐만 아니라 기존의 집열기로는 거의 불가능한 냉난방까지도 한꺼번에 가능하도록 적용된 시스템이다.

기존 태양열 집열기는 주로 급탕용으로 사용되었고, 하절기에 과열로 인한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과는 차별화 한 것이다.

태양열집열기는 유리관과 구리관의 직접 접합기술, 히트파이프 기술 등 요소기술을 이용해 국내기술로 실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이번 실증시스템의 실제 적용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에 단일 진공관 200m²를 설치해 100평의 열람실 냉난방용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단일 진공관형 태양열집열기는 또 중온(70~150℃) 범위에서 집열효율이 높기 때문에 중온의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산업공정열 분야뿐만 아니라 건물의 냉난방 열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한국기계연구원

IT와 전통공학 융합 공통기반 기술개발 적극 추진 중소 제조업체 제공 생산성 및 경쟁력 확보 주력

한국기계연구원 e엔지니어링연구센터는 IT와 전통공학을 융합해 가상공간에서 설계, 엔지니어링 및 제품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과 공통기반 기술을 개발해 중소기업체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사이버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많은 기술이 개발됐지만 아직 투자여력과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체들은 패러다임 쉬프트에 제대로 대응치 못하고 있다.

e엔지니어링연구센터는 이런 흐름에 국내 중소기업체들이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이버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인터넷 기반 설계 엔지니어링 지원센터 시범 구축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센터는 현재 단기간 내에 요구 성능 설계가 가능토록 온라인 개방, 분산 환경에서 원격 및 동시공학과 설계자원의 통합 등을 통한 설계 엔지니어링 방법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제품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도록 가상환경에서 설계와 제작은 물론 각종 시험까지 가능한 가상시제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펌프 설계 및 성능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사이버 엔지니어링 구현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도 시도하고 있다.

자동차 모듈 설계용 에이전트(Agent) 기반 e엔지니어링 통합 프레임워크 개발도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는 차세대 자기부상열차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시스템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MIT와 공동연구 계약 체결 현지 연구실 개설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스핀 전자소자' 개발 추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미국 MIT에 현지 연구실을 개설했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스핀 전자소자(Spintronics) 개발을 위해서이다.

KIST는 지난 7월 13일 스핀 전자소자 기술부문에서 세계적 권위를 가진 MIT의 프란시스 비터 자기(磁氣)실험실 자가디시 무데라 박사팀과 8년간 공동 연구 계약을 맺고 MIT에 현지 연구실(랩)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KIST는 2명의 연구원을 최근 MIT에 파견, 공동 연구에 들어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MIT는 우선 초기 3년 동안 '나노 스핀 전자소자' 분야를 집중 연구기로 했다. 특히 각각의 장점을 살려 KIST는 스핀소자의 공정기술 부문을, MIT는 설계기술 부문을 맡기로 합의했다.

스핀 전자기술은 전자의 전기적 성질에 기반을 둔 기존의 전자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전자의 회전 특성(스핀)과 자기적 성질을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새로운 개념의 메모리 기술로 초고속이면서도 전력 소모가 적어 무선과 대용량 정보화 시대에 가장 적합한 신전자 소자로 각광받고 있으며, 양자컴퓨터와 바이오 기술에도 응용될 수 있다.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한석희 KIST 책임 연구원은 "기업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MIT와 합작 연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